

‘도미노’ 중동·북아프리카 유혈사태 격화

리비아·예멘 강경 진압 사망자 속출...바레인 대화 개시 알제리·쿠웨이트·지부티 등에서도 산발적 시위 충돌

중동과 북아프리카 거의 전역을 휩쓸고 있는 반(反)정부 시위가 주말인 19일에도 이어지면서 리비아에서 최소 15명이 사망하는 등 민주화 유혈사태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바레인에서는 국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왕세자가 반대세력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등 유화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리비아와 예멘 정부는 강경 노선을 견지하면서 보안군이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나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와 함께 알제리, 지부티 등에서도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장기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튀니지와 이집트 시민봉기의 여파가 사실상 아랍권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강경 대응하는 리비아·예멘 = 이날 리비아에서는 제2의 도시인 벤가지를 중심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으며, 진압에 나선 보안군의 발포로 최소 15명이 숨졌다.

이로써 리비아 시위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 숨진 35명을 포함해 공

식집계로만 지금까지 최소 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리비아 정부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으며, 덩달아 언론사의 취재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수백명이 카다피 국가원수의 초상화를 들고 “우리의 혁명적 지도자”라고 연호하는 등 친정부 시위를 벌였으며, 50명의 종교 학자들도 폭력사태의 종단을 촉구했다.

예멘 수도 사나에서도 이날 경찰이 수천명의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 1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쳤다. 이로써 지난 16일 시작된 시위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명으로 늘어났다.

반정부 시위 열혈책을 맞아 사나 대학에서 법무부도 행진을 벌이던 시위대는 친정부 시위대 및 경찰들과 투석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목을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화 행보 바레인·정기화 조짐도 = 바레인에서는 셰이크 살만 빈 하

마드 알 칼리파 왕세자가 수도 마나마의 진주광장에 주둔해 있던 군 병력과 장갑차들을 철수시키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 이번 사태의 분수령을 맞았다.

이는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국왕에게 전화를 걸어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미 있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남아 어두워지면서 진주광장에는 시위대가 다시 바리케이드를 쌓고 임시 의료 텐트를 세우는 등 보안군의 재진입을 경계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 산발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모로코·알제리·사우디 등도 확산 =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도 이날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진압에 나선 경찰들이 곤봉을 휘두르는 바람에 의원 한 명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 사우디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인 정당 설립을 추진하면서 웹사이트에

북아프리카·아랍권 국가 반정부 시위 현황

리비아 벤가지
42년 독재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 퇴진 시위. 17일 벤가지 등에서 보안군의 유혈진압으로 시위대 14명 이상 사망. 아랍 그룹은 사망자가 45명에 이른다고 주장.

이집트 테헤란
아랍인 20일(현지시간)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친정부세력, 18일 정부 지지 및 반정부 시위. 14일 이후 경찰 총격으로 2명 사망, 8명 부상.

바레인 마나마
17~18일, 진주광장에서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 4명 사망, 300여명 부상.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국왕, 대화 촉구 공식 성명 발표.

예멘 사나, 아덴, 타이즈
10일부터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부도시 아덴에서 경찰, 시위대 향해 발포. 4명 사망, 4명 부상. 타이즈에서도 순용자를 탄 남성이 시위대 향해 수류탄 투척. 48명 이상 중상.

오르단 암만
자유 보장과 불기 인허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진 가운데 18일, 친-반정부 시위대 간 충돌, 8명 부상.

지부티 지부티
18일, 오마르 구엘레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수천명의 시위대와 경찰 충돌.

총선 실시, 투명한 정부, 독립적 사법부 설립 등을 주장하던 운동가들이 정부에 의해 구금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부티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이스마일 오마르 구엘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경찰 1명을 포함

北 지하 갱도 여러개 굴착 풍계리 핵실험 준비 징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거의 완공한 데 이어 핵실험장에서도 여러 개의 갱도를 추가로 굴착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북한의 이런 동향에 대해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같은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등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함경북도 김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0일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에서 여러 개의 지하 갱도를 추가로 뚫는 것을 한미 정보당국이 포착했다”며 “추가로 갱도를 여러 개 굴착하는 것은 핵실험의 가용성을 높히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하 갱도는 ‘L’자 모양으로 추정되며, 핵실험에 필요한 최적의 갱도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갱도를 뚫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겨울철에도 미국의 정찰위성에 노출될 정도로 핵실험장에서 인력과 장비 이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의도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정찰위성은 풍계리 일대에서 정찰 횡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북 풍계리 핵실험장서 갱도 여러개 굴착

과거 핵실험 일지
1차(풍계리) 2006.10.9
2차(풍계리) 2009.5.25

함경북도 김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 갱도 최소 2~3개
굴착 징후 포착

미사일기지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에 비해 3배 정도 규모인 동창리 기지에서는 건물 10층 높이(30~34m)의 발사타워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기지에서는 인공위성 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동창리 기지에서는 지난 2008년 5~6월 장거리 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로켓의 엔진 성능실험을 한 데 이어 최근에도 4~5차례 성능시험을 한 정황을 당국은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는 당장 ICBM급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징후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현대식 시설과 장비를 갖춘 대규모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이상 연내 발사 실험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리비아 韓 건설사 습격 현지주민 모두 철수

한국인 등 근로자 1500여명 임시숙소 대피

지난 17~18일 국내 건설사의 리비아 공사 현장과 한국인 근로자 숙소를 잇따라 습격한 현지 주민들이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리비아 주민들은 19일 오후 7시(현지시간)께 해산했으며, 긴급 대피했던 근로자들도 현재 임시숙소로 이동을 마친 상태다.

주민들은 근로자 숙소 3개 동에 불을 질렀으며, 규모가 큰 2개 동은 밤이 한 칸씩 불타고 작은 숙소 1개 동은 대부분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숙소에 있던 한국인 직원들

은 인근 이슬람 사원에 불이 있는 학교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숙소 주변에 있던 차량 31대와 노트북·카메라 등의 귀중품도 미리 옮겨 놓아 피해를 면했다.

다만 모포·MP3 플레이어 등 개인 물품은 대부분 도난당했으며, 주방용품은 심하게 훼손되거나 사라져 취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는 공사 현장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대형 음식점을 임대했으며, 한국인 근로자 70여 명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

1500여명이 19일 오후 7시30분경부터 이곳으로 이동해 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사건에 대해 리비아 정부가 보상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에도 정확한 피해가 집계되는 대로 해당 업체 및 리비아 정부와 협의해 같은 방식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아 현지 주민들은 지난 17일 새벽 국내 건설사의 리비아 테르나주 핵 공사 현장에 난입했으며, 18일 자정경에는 현장으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한국인 근로자의 숙소에 들어닥쳐 근로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UN, 주요 원조국에 대북지원 요청

유엔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15개 주요 대북 원조국에게 미화 82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밝혔다.

이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17일 뉴욕 본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15개 주요 대북 원조국에게 식량과 의약품, 식수 등 총 8260만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방송은 “이 액수는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대북 인도주의 사업 기관의 대북지원 계

획을 취할한 것”이라며 “이 중 절반은 식량 지원에 할당돼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외교소식통을 인용, “회의 참가국들은 수요조사자 정확히 이뤄져야 하고, 지원물자가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은 “WFP의 경우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 브라질,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과 유엔으로부터 1845만달러를 기부받았다”며 “이는 2010년 7월~2012년 6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의 총 예산인 9600만달러의 19%에 불과한 액수”라고 전했다.

美 핵 확장억제 작전계획 8010-08 완성

한미, 내달 북핵 억제 구체적 방안 협의

미국은 최근 동맹국에게 핵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한 ‘작전계획 8010-08’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미국과학자연맹(FAS) 등에 따르면 미국은 잠재적 적성국이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8010-08을 완성했다.

지난 2008년 2월부터 적용된 계획에는 잠재적 적성국을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로 명기했다.

작게 8010-08은 적성국이 동맹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1시간 이내 핵우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

래식 무기 등의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은 네브래스카 오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의 타격 수단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 등으로 핵시설을 정밀타격하게 된다. 타격 목표는 군사시설과 대량살상무기(WMD), 군사지휘부 및 국가기관 시설, 전쟁지원 시설 등이다.

한·미는 다음달 말 확장억제정책 위원회 첫 분회의를 개최해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의 구체적 수단과 방법 등을 의제로 삼고 상호 합의할 예정이다.

2011년 2월 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 2월 24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청소 및 건축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업체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과 각 서비스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주)대진용역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 청소 용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 소독 용역: 소독 및 비취벌레·개미·해충 박멸
- 경비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 심부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 대리운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주)대진용역
TEL 062)372-2332, 371-6644 FAX 062)376-8949

경비원 및 청소원, 운전기사 모집 및 알선 해 드립니다.
모집인원 : 경비인원 00명, 청소인원 00명, 운전기사 00명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쉐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 레스토랑
- 영화, 연극, 공연
- 일반 홍보용 어플 제작
- 골프 예약
- 카페
- 중고차판매

개발이력
모바일 게임 어플 다크 오브 나이트 홍보용 어플 소셜 커머스 '티켓팅기' 스포츠 게임 천국
윌 오브 드래곤
진상 액션
아쿠아 렌드
몬스터 체이스
외 다수

문의 전화
(주)쉐이커스 070-7581-7766
010-3549-9358